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 21면에서 계속

참사랑이야.

불교라고 여러분이 다니면서 부처님 앞에 빌고, 또 인등이라고 해서 백 일을 켜고 뭐, 천 일을 켜고 이러고 다니는데, 왜? 지구가, 아니 우주 전체가 백 일만 돌아가나? 응? 또 백 일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나? 그렇지 않잖아? 좀 대의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우리는 일 초도 머무르지 않고 항상 불을 켜 가지고 있어. 그런데 무슨 인등이 따로 있어? 이 세상에 나와서 편리하게 살 거를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미신이 되고 자기가 미신 행위를 하고, 남이 그걸 보고 또 미신 행위를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야.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가지고 그 마음이 미신이 돼 가지고 미신이 꼬여들게 하느냐 이거야.

그리고 자기 팔자 운명을 자기가 지어서 애를 쓰고 팔자나 운명을 찾는 거지, 그거 붙을 사이가 어딨어? 찰나찰나 돌아가는데 그것 붙을 사이가 어딨느냐고! 업보가 붙을 사이가 어딨으며 시간과 공간이 붙을 사이가 어딨어? 생사윤회가 어디 붙을 사이가 있나? 티끌 하나 붙을 사이가 없다고!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그래서 여북하면 지난번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칠십 평생, 팔십 평생 사는 기간은, 길고 짧고 이것이 생각하기에 달렸다 할지라도, 칠십 평생, 팔십 평생 살아나가는 그 기간은 길지만 죽는 거는 빠르다고. 한 찰나야. 죽는 거는 생명 요거 딱 떨어지는 그 찰나에 인간이 미생물에서부터 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그 업을 지은 것이 이 도리를 알면 그 찰나에 떨어진다고. 이 세상에서는 불도를 믿는 데 돈을 수억을 가지고 그 공덕을 표시하거나 또 수억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하려고 해도 안 돼. 그거는 다 떠나서 하는 거기 때문이야.

인간으로 태어나서 50% 미완성을 어떻게 100%로 만들 수 있나 하는 것을 한번 다시 음미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대의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파악할 수 있다면 견성할 수도 있잖아?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냥 갈 수 없잖아? 우린 수억겁을 거쳐서 이렇게 진화를 해서 창조가 됐는데 자기가 형성시킨 자기 주인을 무시하고 또는 은혜를 모르고 바깥의 형상만 찾으러 다니고 고귀한 이름만 찾으러 다니고 부적이나 무슨 남의 점쟁이 말이나 듣고 다니고, 자기 고귀한 생명을 그리고 고귀한 삶을 그렇게 함부로 한대서야…. 그렇게 값이 쌀까? 어떠한 것이 부닥쳐서 뼈에 사무치는 눈물, 그 눈물이 흐를 때는 기가 막힌 그 한 방울의 피인데 어찌 그렇게 자기의 생명과 삶과 모든 거를 그런 존재로 체인지를 하느냐 이거야. 도매금이 되느냐 이거야.

그러니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마는 두 가지 생각하는 그 여건이, 하나는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 자기 자체, 고정됨이 없는 자기 육신 자체가 모체가 되는 거야. 화두! 그것은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야. 원래 모습을 바꿔서 옮겨 갈 뿐이야. 여러분은 처음에 애기로서 태어났죠? 모습을 바꿔서 바꿔서 변질되면서 예까지 화해서 이렇게 왔죠? 애기 적이 여러분입니까, 젊었을 때가 여러분입니까? 지금 늙었을 때가 여러분입니까? 어떤 걸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이에요. 공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죽고 산다, 이것에 모두가 걸리는데 죽고 사는 것도 없습니다. 본래 산 게 없는데 죽을 게 어딨습니까? 그거는 이론이라고 말할지도 모르죠. 아닙니다. 천만에! 굼벵이가 떨어져서 한 찰나에 굼벵이가 저 매미가 될 때 그 과정을 몰라. 한 찰나의 과정을 모른다고. 한 찰나의 과정만 모르는 게 아니야. 굼벵이가 매미가 됐다고 해도 매미는 자기가 살던 굼벵이를 모르고 굼벵이는 매미가 된 자기 동료를 몰라. 이렇게 바뀌 가는데 어떻게….

> **믿는 거는 자기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의심하지 말라.**
> **무조건 믿어라.**
> **그리고 믿는 데는 무조건 물러서지 말라.**
> **일체 만법이 바로 자기 마음에서 나고 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믿는 거는 자기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의심을 하지 말아라 이거야. 자기를 자기가 의심하지 말아라. 무조건 믿어라. 그리고 믿는 데는 무조건 물러서지 말아라. 일체 만법이 바로 자기 마음에서 나고 든다. 자기 마음이 움죽거려야 자기 몸이 움죽거린다. 자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분별이 있고 분별이 있기 때문에 움죽거린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내세울 게 없는 게, 공했으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 바로 거기에 믿고 맡겨 놔라. 풍차 돌아가듯 그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자동적으로 바람만 불면 풍차는 돌아가.

그러니까 생각만 나면 벌써 이거는 자동적으로 돌아가는데 왜 걱정을 하고 내가 산다고 하고 내 거라고 하고 내가 발발발발 방황해야 하느냐 이거야. 자기 주인이 어엿하게 스스로서 생각만 나면 벌써 우주 법계가 전부 알게 되는데, 응? 개별적인 내가 아니야. 전체가 포괄적인 나야. 포괄적인 나기 때문에 나라고 세울 게 없는 것이 나야.

그걸 이름해서 부처라고 하고 자유인이라고 하고, 각을 했다고 하고 도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들은 많으나 그런 이름 가지고 짓지 마라.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면 그까짓 이름이야 어떤 걸로 이름을 짓든지 자기네들 환경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자기가 이름이 본래부터 없던 거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따서 지을 수도 있고 산 이름을 따서 지을 수도 있고, 동네 이름을 따서 지을 수도 있고 물건을 봐서 이게 여기에 적합하다 하면 거기에 적합하게 이름을 짓고 이런 것뿐이야.

그래서 무조건 믿는다. 그런데 "의정을 가져라."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내가 참나를 알고 난 뒤에 거기서 스스로 나오는 의정이, 대의정이 있는 거야. 아! 이것이, 아! 미지수의 이 문제가, 이건 도대체 당신이나 알지 난 모르니까. 그 아비와 자식이 상봉했을 때의 그 기쁨, 또는 기쁘면 기쁜 대로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갈 때 모르는 거는 다시 자기 자신에게 '아, 이게 뭘까?' 하고 의정을 내는 거지 아니, 모르면서도 무조건 의정을 내야 되나, 이게? 기초적인 건 해 놓고, 주춧돌을 튼튼히 세워 놓고 기둥을 세워야지 아니, 주춧돌도 해 놓지 않고 기둥을 세울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만약에 나무라면, 대들보로 쓴다면 대들보가 될 것이고 서까래로 쓴다면 서까래가 될 것이고 기둥으로 쓴다면 기둥이 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무 하나가 수만 가지로 쓰여지는데 구태여 이름 지어서 이게 따로 있고 저게 따로 있고, 용왕 따로 있고 칠성 따로 있고 신장 따로 있고 산신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야. 순간순간 화해서 순간순간 찰나찰나, 내가 병이 나면 내가, 내 주인공 자체가 바로 약사가 되는 겁니다.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안팎을 다 경영하는 거죠. 운행하는 겁니다. 또 내가 가난하면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야. 내가 어떠한 법에 걸렸다면 법의 위치에서, 지금 현재 생활에서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땐 내가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바로 독성이 되는 거지, 산신이 되고. 내가 명이 짧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바로 내가 칠성이 되는 거야. 지장이 되고.

이렇게 광대무변하고 이렇게 좋은 법을, 왜 좋은 법을 좋게 쓰지 못하고선 그렇게 미신적으로 작고 아주 졸렬하게 쓰느냐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졸렬하게 가르쳤나요? 천만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가난을 끌어들이고, 생각하는 대로 바로 지혜를 끌어들일 수 있고 가난치 않게 살 수 있는 그 기반을 닦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가정을 좌우하고 있고 여러분의 그 삶을 좌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하기를 항상 그냥 찌부리고 '사는 게 모두 이게 뭐냐. 뭐, 사는 게 모두 이렇고 그냥….' 하고 슬픈 생각만 하고 옹졸하게만 생각하니까 모두 옹졸하게 삽디다. 자기 몸이 병이 들고 옹졸하게 살아져.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발랄하고 생동력 있고 '불법의 진리는 이게 아니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하기에 달렸다고 하면서 지혜롭게 산다면 그건 스스로서 풍부해지는 거라.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야. 헤아릴 수 없는 몇억이, 조가, 아니 조라고 해도 틀리고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 생명들이 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뱀을 아주 무지하게 때려 죽였대요. 땅꾼이겠죠. 그런데 산을 다니며 땅꾼 노릇을 하다가 어느 날 어느 스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다가 스님께서 "살생을 그렇게 많이 하고선 돌아가니 어찌 억겁을 거쳐서 그 죄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 하니까 땅꾼이 이렇게 말을 했거든. "수만 명을 죽였다 하더라도 나는 죽인 사이 없고, 그 수만 명의 몸이 내 몸이니 지금 현재에 이렇게 있습니다." 수만 명의 뱀이 자기라는 거야. "수만 명의 뱀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요, 생명이 자기 생명이니 어찌 둘이겠습니까?" 하더라는 거야. 그 스님이 그만 기겁을 했다는 거야, 그 소릴 듣고. 기겁을 해 가지고서 그 스님은 거기에서 그냥 홀연히 터득을 한 거야.

스님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저 지나가는 어린애들이 어떡하고 가는 것도 내가 보고서 잘 참작한다면 그것도 스승이라. 스승 아닌 게 어딨습니까? 서로가 스승이라. 그렇다고 해서 겸손치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대의적인 문제로 돌려서 크게 생각하고 언제나 자기는 머리를 숙이고, 그러면 뺨 맞는 법 없거든. 항상 겸손하게 마음을 가지고 항상 자기 아픔으로 돌리고, 자기로 돌려야 돼. 잘못을 자기로 돌리고. 둘이 아닌데 어떻게 남을 원망하겠나?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배움이라면 인간의 몸을 벗어나서, 지구의 몸을 벗어나서, 즉 말하자면 지구의 벌레에서 벗어난단 말이야.

우리 인간 이 자체 하나가 이것도 혹성이야. 지금 이 혹성 속에 뭇 생명이 살고 있거든. 이 뭇 생명이 살고 있는 이 속의 생명들이 내가 지금 어디로 돌아다녀도, 이리로 가도 어디 간지 모르고 저리로 가도, 막 돌아다녀도 지금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 이 속의 생명들은. 그러면서 여길 가도 거기에 있고 저길 가도 거기에 있거든. 거기 거기 거기, 간도 거기 붙었고 뭐, 생명들도 거기 있고 거기 있고 모두가 거기, 거기 있잖아?

그런데 우리들도 그렇죠. 야, 봐요. 지구의 우리는 지금 배를 타고선, 유람선이 아니라 무람선을 타고 지금 가는 거야. 무람선을 타고 가는데 달도 별도 항상 거기 있거든. 거기 있고 거기 있거든. 그러니 이 지구가 어디까지 갔어도 그 자리가 어디인 줄 몰라. 우린 지금 그 안에서 똑같이 가니까. 아무 데 가 있어도 달은 거기 있고 거기 있거든. 북극성도 거기 있고 거기 있고. 이 별성도 그대로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이 움죽거리듯 그렇게 움죽거리고 있거든. 한군데 머물러져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는 머물러져 있는 줄 알거든. (녹음 안됨) 그 안에서 자기는 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 살고 있고 그러는데 차는 달린단 말이야. 그럼 어디로 달렸는지도 몰라. 차는 가는데 우린 가는 줄 몰라. 그와 똑같다 이거야.

한배 타고 가면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먹으면서, 같이 주고받고 먹으면서 말이야. 별의별 게 다 생겨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같이 증오(證悟)할 수 있고, 같이 좀 지혜를 넓혀서 우리가 이 불법의 뜻을, 근본을 잘 음미해 볼 일이 있지 않을까요? 불법이 우주와 더불어 같이…, 우리 인생관 자체가, 바로 진리가 불법이니까.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불이 가설이 됐다 할지라도 코드를 꽂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숭상하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는 세세생생에 거듭거듭 모르게, 차원이 얕으니까 얕은 대로 생산이 될 거야. 진화될 거라 이 소리예요.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6년 4월 19일 일반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